



<h1>세계</h1>	<h1>5</h1>
<h1>도시동향</h1>	2000년 7월 31일

## HEADLINE NEWS

### 폐기물 청소서비스수준 및 만족도 발표 (런던)

런던시 Newham구는 최근 2000년과 2001년의 연간 폐기물관리지표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뒷받침하고, 질 좋고 안정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9년에 도입되었다. 관리지표는 질(質), 시민만족도, 비용절감 등 3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된다. '질'은 비수거폐기물량, 수거의 정시성, 재활용률, 매립감량을 이용하여 동일 가중치 조건에서 점수화하고, '시민만족도'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며, '비용절감'은 청소사업비용을 기초로 평가한다.

이번에 설정된 관리지표는 '99년 1월의 지표와 비교하여, 청소사업의 질의 경우 53.3점에서 54.8점으로, 시민만족도의 경우 76%에서 79%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청소사업의 비용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www.newham.gov.uk/bestvalue/bvwaste.htm](http://www.newham.gov.uk/bestvalue/bvwaste.htm))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인터넷을 이용한 21세기형 시민공개행정 선도 (암스테르담)
- ② 미군기지 종합대책 세워 연대투쟁하기로 (동경)

### 도시환경

- ③ 배기가스 미세먼지가 노인 사망률 높여 (미국 90개 도시)
- ④ 민관협력형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조례」 제정 (일본 야마나시縣 都留市)
- ⑤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도시고속도로변 수림대 조성 (뉴욕)
- ⑥ 광역수계관리협정에 의한 사업 구체화 (뉴욕)
- ⑦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지급 (홍콩)

### 도시교통

- ⑧ 도심순환 무료 전기버스 운행 (미국 : Chattanooga 시)
- ⑨ 최첨단 지하철 차량 시험 운행 (뉴욕)

### 사회복지

- ⑩ 가정폭력 가해자의 감옥출소 여부를 알려주는 24시간 핫라인 운용 (시애틀)

### 행.재정

- ⑪ 지방분권법 시행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교토)
- ⑫ 에너지절약형 전열시스템 사용업체에 리베이트 제공 (L.A)
- ⑬ 온라인 수도요금 납부 시행 (토론토)

### ① 인터넷을 이용한 21세기형 시민공개행정 선도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시는 시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시관련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진 인터넷 기술을 이용, 지도 정보와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결합시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시민들은 암스테르담 지역의 향후 도시계획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문의도 할 수 있다. 또한 시관련 정책방향과 향후 계획들은 암스테르담 지역의 지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장래개발계획과 대중교통노선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청각 자료는 도시 외관을 바꾸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www.transparant.net/amsterdam/engels/infoengels.html](http://www.transparant.net/amsterdam/engels/infoengels.html))

### ② 미군기지 종합대책 세워 연대투쟁하기로 (동경)

일본에는 2000년 1월 1일 현재 134곳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총면적은 101,000ha에 달한다. 미군기지의 운영 및 주둔미군의 법적 지위 등은 일·미간에 체결된 「지위협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협정은 양국간의 협의를 거쳐 운용된다. 東京都에는 2차 세계대전 직후 208곳의 미군기지가 있었으나, 東京都나 市町村, 都民들의 노력으로 미군기지가 정리·축소·반환되어 2000년 현재 8곳이 있으며, 총면적은 1,605ha이다.

현재 東京都는 미군기지를 항공기 소음 피해, 사건·사고, 환경문제 등을 유발하고, 도로 등의 기반정비 및 지역개발 등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都는 都民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역 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지의 정리·축소·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군기지 소재 14개 도도현 지사 모임인 「섭외지사회」와 연대, 공동 대응하고 있다.

또한 東京都는 미군기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기지대책 연락조정회의」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 구시정촌과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 총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주변 5市 1町과 함께 「요코다 기지 관련 東京都 및 주변市町 연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東京都는 2000년도 기지대책의 기본방침을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반환’ 및 ‘반환 때까지 공동사용 촉진’으로 정하고 이를 정부에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www.seisaku.metro.tokyo.jp/chosei/kichi.htm](http://www.seisaku.metro.tokyo.jp/chosei/kichi.htm))

### 3 배기가스 미세 먼지가 노인 사망률 높여 (미국 90개 도시)

최근 미국내 90개의 대도시권에서 자동차, 발전소 등의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미세먼지가 노인들의 사망률과 입원율을 상당히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자동차 제작회사와 환경청의 지원을 받고 연구를 수행한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공기중의 미세먼지가 1m3당 20 $\mu$ g 증가하면 사망률이 1% 증가하고, 노인들의 입원율은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북동부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뉴욕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사망률이 2배나 높게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뉴욕이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의 측정이 정밀해 이들간의 상관관계가 잘 파악되었거나,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이 서부지역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서부 지역은 미세먼지의 성분이 대부분 질소-산소화합물인데 반해, 뉴욕시의 미세먼지는 유황-산소 화합물이라는 것이다. 환경청은 이 연구결과가 단기적인 영향만 언급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장기적인 영향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환경청은 현재 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인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를 정확히 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6. 28)

### 4 민관협력형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조례」 제정 (일본 야마나시縣 都留市)

츠루(都留)시는 시민위원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마나시현 최초로 「츠루시를 깨끗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민, 기업, 행정당국이 상호협력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투기 금지, 미화추진중점지구 지정, 미화추진지도원 임명, 불법투기물 처리, 재활용품 회수용기 설치 및 관리 등이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행정당국은 쓰레기발생 억제 등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민은 주거지 주변을 청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은 쓰레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할 경우에는 쓰레기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의식계몽 캠페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www.city.tsuru.yamanashi.jp/cleanup/clean.htm](http://www.city.tsuru.yamanashi.jp/cleanup/clean.htm))

### 5]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도시고속도로변 수림대 조성 (뉴욕)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현재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브룩클린 퀸스 고속도로변을 따라 수목을 심는 다목적 경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과도한 교통량 부하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에 주목적이 있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식생 형성을 통한 미적 가치 증진, 여름철 기온 저하, 그리고 주거지역 소음 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에 뉴욕시는 도로변 식재에 의한 다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수목종류별 효과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목이 과학적으로 식재되도록 하고 있다. ([www.ci.nyc.ny.us/html/dep/html/news](http://www.ci.nyc.ny.us/html/dep/html/news))

### 6] 광역수계관리협정에 의한 사업 구체화 (뉴욕)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뉴욕시, 뉴욕주, 73개 읍·면, 8개 카운티, 민간환경단체, 연방환경청 등이 광역수계 보호를 위해 '97년 1월 21일 체결한 수계관리협정 (Watershed Memorandum of Agreement)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수질보호 취약지역인 水源地 인근 미개발지·저습지·수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토지취득과 地役權 설정, 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한 개발계획의 환경성 검토 및 수질보전 규제, 뉴욕시와 상류지역 주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수계관리를 둘러싼 갈등 조정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www.ci.nyc.ny.us/html/dep/html/news](http://www.ci.nyc.ny.us/html/dep/html/news))

### 7]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지급 (홍콩)

홍콩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경유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유 택시를 LPG 택시로 바꾼 소유주들에게 '99년 10월 7일 이후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4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은 금년 8월 8일 이후부터 접수받기로 했으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7년 이상된 경유 택시의 소유주들은 이 기간동안 경유 택시의 교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www.info.gov.hk/td/eng/whatsnew/diesel.html](http://www.info.gov.hk/td/eng/whatsnew/diesel.html))

### 8 도심순환 무료 전기버스 운행 (미국 : Chattanooga시)

미국 테네시주 채타누가(Chattanooga)시는 'CARTAC'(Chattanooga Area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이 도심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심순환노선에 전기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심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을 재원으로 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무료로 셔틀버스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현재 17대의 전기버스가 운행중이다. 전기버스 무료 운행은 도심에서의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공공교통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www.ecoiq.com/magazine/features/feature7.html](http://www.ecoiq.com/magazine/features/feature7.html))

### 9 칩첨단 지하철 차량 시험 운행 (뉴욕)

뉴욕시는 최근 새로운 모델의 지하철 차량을 시험 운행했다. 새로운 지하철 차량의 외부는 기존 차량과 비슷하나 내부는 확연히 다르다. 우선 실내조명이 밝아졌으며, 간접조명으로 눈부심을 방지했다. 냉방시설과 방음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컴퓨터로 조작하면 현재시각과 다음 역을 알려주는 전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차량이 현재 어느 지하철 노선상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전자지도가 있으며, 에어백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 차량의 떨림이 덜하다. 출입문이 4인치 더 넓어졌으며, 좌석 밑에 공간이 있어 거기에 짐을 둘 수도 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차량 모델은 30일 동안 세밀한 테스트를 받게 된다.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뉴욕시는 1,500여대의 신차량을 투입, 현 지하철시스템의 낡은 차량들을 교체할 방침이다.

(The New York Times, 7. 11)

### 📌 가정폭력 가해자의 감옥출소 여부를 알려주는 24시간 핫라인 운용 (시애틀)

시애틀시의 킹 카운티는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전화시스템을 운용한다고 발표하였다. 'VINE'(Victim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Everyday)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석방되기 최소 30분 내지 몇 시간 전에 24시간 무료 핫라인으로 운용되는 자동전화로 피해자에게 통지해 줌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협을 가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입, 미국에서는 현재 35개 주 700여개 지역에서 운용 중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VINE 프로그램에 무료로 등록만 하면 된다. 시애틀시의 킹 카운티는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기타 소수민족 언어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eattle Times, 7. 21)

### 📌 지방분권법 시행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교토)

교토시에서는 현재 시민과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논의중인 '시민참여추진 간담회'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99년 7월에 '지방분권 추진일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행정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간담회는 이러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확대 추세에 맞춰 21세기 올바른 시민의 시정참여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교토 시장이 '99년 5월에 설치했으며, 현재 시민단체 대표자 및 학계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담회는 지금까지 매달 한번씩 개최되었으며, 시민참여의 전제가 될 행정정보 공개방식과 '참여절차 가이드라인',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 올해 말 이러한 논의 결과를 정리해 시에 제안을 하게 되고, 시는 이 제안을 기초로 '교토시 시민참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www.city.kyoto.jp/sogo/partner/konwakai.html](http://www.city.kyoto.jp/sogo/partner/konwakai.html))

### 에너지절약형 전열시스템 사용업체에 「리베이트」 제공 (L.A)

로스앤젤레스시 자원과(Department of Water and Power)는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설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상업전력 효율성 제고’(Commercial Lighting Efficiency Offer)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절약형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전구 및 전열시스템을 설치·사용한 업체는 이를 통해 절약된 전력 1kw당 25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80만kw의 에너지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가을부터는 일반가정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40만kw의 추가적인 전력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Los Angeles Times, 6. 28)

### 온라인 수도요금 납부 시행 (토론토)

토론토시는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한 수도요금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요금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종이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수도 있어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온라인 수도요금 납부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며, 시민들은 토론토시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온라인업체에 신청만 하면 된다. 이 업체는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올해 8월 28까지 2주에 한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당첨자 1명에게 수상레저 이용권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펴고 있다

([www.city.toronto.on.ca/water\\_bill/index.htm](http://www.city.toronto.on.ca/water_bill/index.htm))